



아버지, 그리고 나

현대청운고 1-1 이주형

거울을 바라보면 보이는 그리움의 기억
가련한 내 얼굴 사이에 비춰진 쓸쓸한 사랑

이젠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
나의 새까만 눈동자, 푸석한 곱슬머리 속에
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당신의 모습과
외로움의 바다에 잠긴 나의 모습

하나둘씩 늘어만 가는 얼굴 속 길을 따라
어느덧 아련해진 옛 추억 쫓아가 볼 때면
따스했던 봄 지나 새하얀 겨울 찾아왔지만
나의 외로움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구나.

거울을 바라보면 보이는 평온함의 내일
가련한 내 얼굴 사이에 비춰진 소중했던 사랑.

아버지, 우리는 점차 닮아져 가는 군요.